

문제가 되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란 채무에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해야하는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카드나 대출 등 결제해야 할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를 했을 때 생기는 이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기한이 지난 이자, 즉 연체된 이자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연체이자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채무원금에 가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채무가 매각되어 다른 채권사로 넘어가도 연체 이자가 발생,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연체이자가 무서운 진짜 이유

그러나 얼핏 보면 연체이자도 결국은 평범한 '이자'로 볼 수 있는데요. 연체이자가 무서운 이유는 결국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연체이자는 대다수 은행에서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합니다. 가령 7% 금리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여기에 6% 정도의 연체가산금리가 붙어 대출잔액의 13%가 연체이자가 되죠.

보통 연체 1~2개월까지는 원금 일부 또는 이자 등 미납한 상환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연체 기간이 이보다 길어지면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연체이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할 빚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연체가산금리는 산정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모호하기 때문에 은행이 정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6~8% 정도를 연체가산금리로 잡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